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	
		배포일시	2021. 6. 14.(월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 부서	건축안전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진수, 사무관 최민중, 주무관 노운용 • ☎ (044) 201-4987, 4989, 4986	
	국가공간정보센터		• 센터장 임현량, 사무관 백규영, 주무관 육진영 • ☎ (044) 201-3488, 3491, 3496	
	건설안전과		• 과장 한명희, 서기관 정덕기, 사무관 안일찬 • ☎ (044) 201-3573, 3552, 3562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국토부, 중앙 사고수습본부

GIS 활용하여 해체공사 우선 점검대상 선정

- 전국 3만여 현장 중 고위험도 140여개 현장 2주간 집중점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6월 13일(일) 장관 주재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제3차 중앙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였다.
- 노형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에 3만 여개소에 달하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활동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.
- 우선 GIS 정보를 활용*하여 사고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분석한 후, 일차적으로 140여개 현장을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 GIS 분석은 세움터를 통해 건축물대장과 해체계획서 정보를 받아, 건축물의 높이, 도로 이격거리, 버스정류장 인접여부 등 정보를 중첩·분석하여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추출

- 안전점검은 국토부, 지방국토관리청, 국토안전관리원,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, 6월 14일(월)부터 30일(수)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.

- 점검 항목으로는 인허가 당시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시공 여부, 감리자의 업무 수행 적정성, 현장 인접한 건축물·도보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.

○ 또한, 6월 16일(수)에는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고 전국 시·도안전 실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,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.

□ 이날 노형욱 장관은 현재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가족 보상 등에 대해서도 행안부 등 관련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아울러,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(위원장 이영욱 교수)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사고 원인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,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,

○ 사조위 활동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국토부에서는 관련 전문가 등이 제기하는 해체공사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경청하고,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사전에 적극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.

참고 : GIS 기법을 이용한 해체대상 건축물 공간분석 개념도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최민중 사무관(☎ 044- 201-4989) 및 국가공간정보센터 백규영 사무관(☎ 044-201-3496), 건설안전과 안일찬 사무관(☎ 044-201-356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